

아프리카미래재단

Africa Future Foundation USA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T. 714-732-1484 / 발행인: 김홍식 / 편집인: 나삼진



김홍식 장로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이사장)

마음의 창(窓)

눈은 우리 삶을 크게 좌우한다. 우리 몸에서는 물론, 일상생활 많은 곳에 카메라들이 눈처럼 달려 있어 우리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 건물과 도로는 물론 심지어 전쟁터로 부터 실시간 영상이 전송되고 있다. 주위 사물 인식 기술로 레이더(RADAR)가 사용되어 왔지만 더 정밀한 라이더(LiDAR)라는 기술이 나왔다. 사람의 눈은 반사된 태양광을 매개로 사물을 보지만, 레이더는 전파를 발사해 물체에 맞고 되돌아오는 데이터로 물체의 거리, 속도, 방향 정보를 파악하는데 라이더 기술 경우는 레이저 빛으로 하기에 더욱 빠르고 정밀하다.

작지만 정교한 우리의 눈에는 병의 종류도 여러 가지이다. 시력이 떨어진다고 다 같은 질환이 아니며 원인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기에 구별을 해보아야 한다. 노안은 사물이 침침하게 보인다. 백내장은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눈 속의 수정체 조직에 혼탁이 생겨 시력이 떨어진다. 눈의 안쪽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경조직을 황반이라고 하는데, 이 황반부에 변성이 일어나면 시력장애를 일으켜 흐려 보이고 글자나 직선이 휘어져 보이고 점차 시력이 많이 저하된다.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하며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 공급에 장애가 생겨 시력이 감소되고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안구 건조증은 윤활제 즉, 눈물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발생하는데 눈의 뻑뻑함과 모래알이 구르는 느낌, 이물감, 쓰라림, 가려움, 눈꺼풀이 무거운 느낌 등이 있다. 치료로 인공눈물을 수시로 넣어주고 주기적으로 눈을 몇 분 동안만이라도 쉬게 한다.

눈은 몸과 마음의 창이다.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본다고 한다. 눈물을 통해 눈은 그리움과 사랑을 보기도 하고, 보석같이 반짝이는 아기들의 눈에서는 순간 순간 변하는 행복, 기쁨, 호기심을 읽을 수 있다.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마음에 품느냐로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정하고 삶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한다. 한 개인이 질투와 욕심을 가지고 남을 보면 자신의 마음이 평안을 잃을 것이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다면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따뜻한 사랑의 창으로 남을 보기위해 노력해야하며 다른 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기 위해 상대방에게 나아가야 한다.

인류 근대사는 세상을 서로 다른 신분에 대한 권력투쟁으로 본다. 양반과 천민, 부자와 가난한자, 지배자와 피지배자로 나뉘어 싸워 왔다. 21세기 들어서 역사가 많이 발전되었나 싶더니 잘못된 생각과 야욕으로 인해 국가와 세계를 보는 눈들이 심각하게 병들고 있다. 다시 민족 간에 다툼의 골이 깊어지고, 강자가 욕심을 내어 더 가지려는 싸움이 격렬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를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한다. 우리는 다른 이를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고귀한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 볼 수 있어야 한다. 눈 질환 치료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창을 값없이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반듯이 해야 한다. 올바른 마음만이 꼭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미국본부



Mission

우리는 지속적인 섬김과 나눔, 협력을 통해 아프리카의 발전을 도와 아프리카 주민들과 함께 더 건강한 아프리카 미래를 만듭니다.

Vision



미래가 있는 아프리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리더로 양성합니다.



건강한 아프리카
의료보건 서비스를 지원하고 현지 의료인을 양성하여 자립 의료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행복한 아프리카
아프리카 현지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가족 공동체
모든 임원, 스텝, 현지 파트너와 기관들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갑니다.



성경적 건강



박상은 대표
(아프리카미래재단 대표, 샘병원 미션원장,
국제보건의료학회장)

건강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막연히 건강을 질병이 없는 상태로 생각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필요가 충족된 상태를 건강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이 갖고있는 생리적 필요, 정신적 필요, 사회적 필요, 나아가 영적인 필요까지도 만족시키는 것이 온전한 치유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40세 주부가 위궤양으로 제게 찾아와 제가 좋은 약을 처방하여 치료가 잘 되었는데, 6개월 후에 다시 위궤양이 재발하여 찾아왔습니다. 저는 약의 문제라 생각하여 다른 약으로 처방하였더니 좋아져서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아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후 그 환자분이 응급실에 피를 토하며 실려 왔습니다. 응급내시경을 해보니 궤양이 또 재발하여 이제는 위가 구멍이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약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고 자세히 여쭙보았더니 벌써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최근에는 상대여성이 집에까지 전화를 걸어와 그로 인해 너무 심한 자존감의 상실과 마음의 고통으로 고민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의 많은 질병은 병원균보다도 그 사람의 잘못된 습관과 삶의 태도에 기인하는 경우가 흔한 것 같습니다.

진인건강을 생각하면 저의 뼈아픈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막 내과전문의가 되어 종합병원에 근무하던 어느 날, 알코올성 간염 환자가 내원하였습니다. 3주간의 입원기간 동안 열심히 치료한 결과, 간기능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저는 자신만만하게 큰소리 치며 환자를 퇴원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다급히 저를 찾는 방송에 응급실로 달려가보니, 아뿔사,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아침까지도 멀쩡한 모습으로 퇴원했던 그 환자가 채 8시간도 안되어 주검의 모습으로 제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환자는 다 나왔다는 주치의사의 말에 기분이 좋아 끊었던 술을 한잔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부마고속도로 난간을 들이받은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다 나왔단 말인가요? 도대체 저는 그 기나긴 3주 동안 무엇을 치료했던 말인가요? 제가 그동안 치료한 것은 단지 간기능 수치였지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알코올성 간염환자가 치료되려면 무

엇이 치유되어야 할까요? 그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내면의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깊은 공허감이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영혼이 터치되지 않고서 어떻게 다 나왔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환자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였고, 그의 내면의 질병을 지나쳤기에 그의 삶의 방식은 변화될 수 없었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며, 습관은 성격을 만들고, 성격은 인격을 만든다고 합니다. 삶의 방식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치유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뼈아픈 그 실수를 돌아보며 이제 검사수치만을 치료하지 않고 육체와 정신, 영혼까지 전인적 치유를 시도하려 합니다.

성경에는 건강한 사람들도, 병든 자들도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힘 있고 건강한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하시지만 나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도 하십니다. 구약에는 장수의 축복을 누리신 신앙의 인물들을 만나지만, 사도요한을 제외한 열두 제자들과 세례요한과 스테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주님께 헌신의 삶을 사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시며 사별의 슬픔을 맛보게 하시는 것일까? 불의한 자가 세상에서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의로운 자가 핍박받는 이 세상의 왜곡된 모습으로 인해 불신자들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의 건강 개념도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스테반이 일찍 죽음을 당하였지만 그의 삶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장수를 누리며, 사도 바울은 많은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했지만,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함을 유지했습니다. 건강의 기준은 인간에 의해 규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원천인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시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과 육을 그에게 의탁함으로 최선의 건강의 삶을 누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고 자라고, 우리 마음은 사랑을 먹고 자라며,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혼이 잘 됨같이 육신도 강건하여 성경적 건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남아공 선교 소식

김경환 • 송선아 선교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사랑의 기도와 격려와 후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1년 전 강도 사건을 겪은 이후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흑인 마을과 칼라드 마을에 부담없이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남아공은 코비드 상황이 많이 호전 되었습니다. 외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 시작됩니다. 겨울에 코비드 상황이 악화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섬기시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해 저희들도 기도합니다.

1-3월에 섬긴 일들

- End year function(1월 8일): 동역자 가족들과 사랑의 교제
- Annual General Meeting(1월 22일): 사역 및 재정 보고
- 나미콰란드 졸업식(1월 28-30일): 7명 졸업
- 바이블 스쿨 개강(2월): 8곳의 캠퍼스에서 150여 명 학업중
- 아버지 학교(3월 4-6일): 70회 아버지 학교, 9명 수료
- 교도소 아버지 학교(3월): 매주 목요일, 20명 수료
- 세미나(3월 26일):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하여
- Namaqualand(3월 18-20일): 30여 명 등록 학업중

4-6월에 섬길 일들

- George & Plettenburg Bay(4월 8-10): 집중 강의
- Father School Vision Conference(5월 6-7)
- Namaqualand(5월 27-29일): 집중 강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도록
-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 신학교가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 가족 모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해 저희들도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최근 남아공화국은 코비드 상황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2년 만에 아프리카 리더십 컨퍼런스 센터에서 아버지 학교를 섬겼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신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학교를 잘 섬겼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헬더스트롬 교도소에서 아버지 학교를 섬겼습니다. 함께 섬겨주신 삐에르, 크리스토퍼, 칼라일, 버나드 형제와 엄영흠 선교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도소 아버지 학교를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독일 아프리카 리더십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도소 아버지 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교도소 내 범죠희이 줄어들고 멀어졌던 가족들이 면회를 옵니다. 주께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간다 선교 소식

김세현 • 노미정 선교사



1. 아프리카에서 보낸 선교 편지들을 언제나 꼼꼼히 읽으시는 마산 복음교회 이병권 목사님. 그냥 기도만 해 주셔도 감사한 일인데 꼭 한두 마디 사랑을 담은 글을 시적인 운율로 적어 답신을 주시는 따뜻한 목사님이십니다. 선교사는 이곳 우간다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중보자들과 후원자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 자체로서도 큰 기쁨입니다. 비록 바쁜 삶의 현장에서 답을 해주지 못해도 후원자들이 글을 읽는 그 순간이라도 잠시 목상하며 선교지를 축복하고 있음을 알고, 이들이 있기에 또한 선교사가 있음을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 믿음 안에서 개인적인 깊은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몇 년 전 잠시 수요일에 방문하여 아프리카 선교 소식으로 나눔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기도 편지를 나누곤 하였습니다.

3. 어느 날인가 선교사역 소식에도 언제나 격려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우물사역을 전하는 선교 편지를 읽으시고는 우리 교회도 동참하는 기회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 왔습니다. 어린시절부터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몸소 느낀 우물에 대한 깊은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선교사들이 보낸 글에 그냥 읽고 지나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는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흔한 일로 이해하며 받아들입니다.

“선교사님. 나도 우물 파는 사역에 쓰임받는 자를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찾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이 온 지 한 주 정도 지났을까요. “선교사님. 드디어 우물 헌신자를 찾았습니다. 공승표 장로님, 김연순 권사님 부부가 금혼식 기념으로 아프리카 우간다에 우물 헌금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아멘, 아멘. 갑작스런 카톡에 얼마나 기뻐했지요? 결혼 50주년은 금혼식 아닌가요? 이런 귀한 기념비적인 날을 기억하며 세상 그 어느 곳이 아니라 아프리카 우간다에 깨끗한 물을 보급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4. 그 교회가 바로 킬링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2016년도에 약 10명의 교우들과 함께 개척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부지도 없고, 예배 드릴 장소도 없이 오직 망고나무 밑에서만 예배드린다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는 부스러기같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오직 주님께 헌신한 1명의 성도뿐이었지요. 이 여인은 교회 담임목사와 함께 하나님을 꼭 붙들고 교회를 지키려고 전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기를 믿고 계속, 계속, 또 계속 해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5.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으로 교회 부지를 구입하고, 임시 예배처로 하나님의 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임시 예배처를 만들고 담임목사와 이 부인은 함께 가정들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복음전도에 마을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며 모이기 시작했죠. 그 결과 성도들이 점점 늘어서 지금은 30여 명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의 헌신으로 모임은 계속되지만, 그러나 기도회나 금식주간이나 성경읽기나 여러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할 때 물이 없어 모임의 어려움을 계속 눈물로 주님께 기도한 교회입니다. 이런 지역의 우물 사역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복음교회와 공장로님 부부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이들은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6. 오늘의 우물증정식으로 이 마을 800가정은 오늘부터 더 이상 물이 어디있는지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은 잔치 중의 잔치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큰 도움이 오기는 이것이 처음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기적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아멘, 아멘. 금혼식 기념의 우물헌금은 이 마을을 각종 더러운 물 때문에 가지던 질병에서 살려주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우물을 돌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AFRICA FUTURE FOUNDATION NEWS



◀ 수상 연설

박상은 대표 JW중외박애상 수상

아프리카미래재단 박상은 대표가 지난 4월 8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있는 제63회 대한병원협회 총회에서 대한병원협회와 중외제약이 수여하는 제30회 중외박애상을 수상했다. 박 대표는 2007년 아프리카미래재단을 설립한 이래 지난 15년 동안 아프리카 아프리카 16개국에서 의료봉사활동과 국제개발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고, 1998년부터 10년간 일곱 차례 북한을 방문하여 의료지원 활동을 한 바 있다. 또한 박상은 대표는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장(장관급)으로 재임하는 동안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생명경시 풍조를 우려해 정부 차원에서 생명존중선언문을 발표하였고, 정부 각 부처에서 이를 활용하도록 했는데, 생애를 두고 북한과 아프리카 등에서 펼친 봉사가 널리 인정받은 것이다.

박상은 대표는 고려대 의대를 졸업한 후 성산 장기려 박사가 설립자로서 병원장으로 있던 부산복음병원(현 고신대의 부속병원)에서 수련의과정을 거친 내과 전문의로, 장기려 박사의 생명 존중사상에 뜻을 같이 해 1997년 의사들과 뜻을 모아 성산생명윤리연구소를 만들어 25년 동안 시민 캠페인과 의료인 생명윤리교육을 포함한 다

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박상은 대표가 받은 중외박애상은 병원장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인데, 그가 아프리카미래재단을 통한 귀한 사역에 공적인 인정이라는 면에서 우리 재단으로서도 큰 영예라 하겠다.

잠비아 제라보건대 공사 막바지

아프리카미래재단USA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제라보건대학 강의동 공사를 맡아 건축하기로 하고, 지난 1년 동안 기존기금과 5만 달러를 모금하여 모두 10만 달러를 전달했다. 이에 제라보건대학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면서 강의동 이름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받아 '소망'이라는 의미를 담은 현지어로 지을 것을 추천했다.

잠비아는 의사 1인이 15,000명, 간호사 1인이 25,000명의 환자를 돌보아야 할 정도로 의료 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실력있는 의료인 양성을 통한 국가의료 서비스 확대, 임상의학과 운영으로 효율적인 Clinical officer 양성, 부족한 간호인력 양성을 목표로 제라보건대학을 통해 매년 200명씩, 5년 동안 1,000명의 의료인력을 양성하여 150-250만 명을 돌볼 계획이다. 제라보건대학에서는 곧 준공식을 갖고, 강의동에서 잠비아 보건 의료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이 일을 위해 기도와 헌금을 보내신 분들께 감사를 표한다.

홈페이지 africaffusa.org 오픈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홈페이지 africaffusa.org가 3월 17일 공식적으로 오픈했다.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홈페이지는 회원들 및 공개적으로 우리 재단의 사역을 알리는 것은 물론, 시간과 함께 우리 재단의 사역과 역사적 기록이 집적될 것이라 본다.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 정착하면 앞으로 2세대들과 영어독자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영어 편집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사회에서는 이를 위해 우리 재단 후원회원으로 참여해 온 IT전문가인 송은석 집사가 자원하여 봉사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홈페이지 관리와 IT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수상 연설과 관계자들과 함께한 사진

아프리카미래재단 15주년을 맞으며

올해는 사단법인 아프리카미래재단이 대한민국 외교부에 정식 법인으로 등록된 지 만 15년이 되는 해입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2006년 봄, 아프리카 스와질란드 김종양 선교사님과 조창환 목사님을 비롯한 몇 분이 안양샘병원으로 오셔서 에이즈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이지만 의과대학이 없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며 아프리카로 발걸음을 옮긴지 16년이 되었습니다.

이후 말라위 짐바브웨 잠비아로 사역이 확장되면서 코이카와 국제보건의료재단, 경기도 등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저희 재단이 맡게 되면서 이제는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16개 국가로 사역이 확장되었습니다.

몇년 전 외교부장관이 산하 500여개의 NGO대표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는 ODA사업도 백화점 시대가 아니라 전문성을 가지고 작지만 강한 단체가 되어야 한다며 그 사례로 아프리카 지역에 집중하며 보건 의료 전문적으로 하는 아프리카미래재단이 바로 강소 NGO의 모델이라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5주년에 걸맞게 KCOC 우수 NGO상, 대한의사협회와 보령제약이 수여하는 보령봉사상 본상을 수상하였으며,



▲ 박상은 대표는 이번 JW중외박애상의 상금 일부인 1,000만원을 아프리카미래재단에 기부

대표인 저는 대한병원협회와 중외제약이 수여하는 30회 중외박애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후원해주시고 묵묵히 선교지에서 맡겨진 섬김의 사역을 쉬임없이 해오신 선교사님과 스태프들의 수고라 생각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5주년이 되었으니 미국법인의 확장과 나아가 호주와 유럽 등에도 아프리카미래재단 법인이 설립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7월 2일 15주년 감사예배를 한국에서 드리고 7월 9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동부와 서부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아프리카 남아공과 에스와티니에서 15주년 기념 비전트립을 가질 계획입니다.

올 한해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금 해외선교사역을 시작하는 포스트코로나 선교의 원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아프리카미래재단이 이니셔티브와 리더십을 가지고 새롭게 재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시금 늘 애써주신 김홍식 미주법인 이사장님과 나삼진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동역자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상은 / 아프리카미래재단 대표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본부/지부



□ Los Angeles 본부

주소 : P. O. Box 5362 Fullerton, CA 92838
전화 : 714-732-1484

□ New York / New Jersey 지부

주소 : 1 Executive Drive Suite LL100, Fort Lee, NJ 07024
전화 : 201-218-2460

□ Washington DC 지부

주소 : 9198 Red Branch Rd. #H, Columbia, MD 21045
전화 : 301-821-7214

아프리카를 꽃피우는 손길, 함께해 주세요.

기관번호 (FEIN)

83-4396614

Africa Future Foundation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714-732-1484 (미국) +82)31-342-9182 (한국)

aff@africaff.org

www.africaffusa.org

  아프리카미래재단  africafuturefoundation

후원하는 방법

수표 보내실 때

- 받는 사람 : Africa Future Foundation

- 주소 :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송금하실 때

- 은행 :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 3251 2035 5776

- Routing 번호 : 121000358

- SWIFT C : BOFAUS3N

선한 청지기들 2022. 1. 1 - 3. 31 / 재정보고

헌금자 명단

Euiwon Chough, Andrew / SoYoung Kim, Michelle Y. Lim, Simon Paek, Young Song, Johng Yahng
김응원 / 김재선 김정열 김희집 / 김재숙 김홍식 / 김정미 나삼진 박형락 백형순 송영은 송해찬 양해종 유재열
이승숙 이종남 이준현 이한나 이홍철 장수자 장국현 정진철 황길남 허지국 / 허영화 허정순 / 허철신
새벽이슬교회, OC살롱교회, OC한인교회, Livingstone Home Health, ENL Service, Inc.

*혹시 이름이 누락된 경우 AFF 사무실 (714-732-148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전기이월	82,975.78
1월 현금	2,765.00
2월 현금	3,425.00
3월 현금	11,855.00
분기 수입	18,045.00
총수입	101,020.78

지출

사업비 / 마다가스카르 AFF	2,000.00
사무비 / 발송비	319.30
뉴스 레터 편집 / 인쇄비	1,295.98
송금 수수료	45.00
분기 지출 소계	3,660.28
잔액 (차분기 이월)	97,360.50